

곡성 토란, 어린이 급식 메뉴로 재탄생 초등학교 급식 연계 시식 홍보로 '호응'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24일, 30일 2일간 지역 특화 농산물인 토란의 소비 확대와 가공식품의 다양화를 위해 토란스프, 토란에그타르트를 개발해 관내 소재한 곡성중앙초등학교 어린이급식과 연계한 시식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식 홍보활동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토란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기존 토란 요리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디저트 형태로 개발된 토란에그타르트와 토란을 간편히 섭취할 수 있는 토란스프를 어린이 급식에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농산물 소비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토란에그타르트와 토란스프는 곡성산 토란을 활용해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살린 것이 특징으로, 토란 특유의 식감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단체급식에도 간편히 적용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개선했다.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토란이 지닌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어 어린이 급식용 메뉴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식은 곡성중앙초등학교 점심 시



사 시간에 맞춰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과 급식 관계자들로부터 "맛있고 새롭다", "토란이 들어가서 더 부드럽고 담백하다"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토란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향후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메뉴로의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서연남 소장은 "토란은 곡성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지만, 소비 형태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토란에그타르트, 토란스프 개발과 어린이급식 연계 시식 홍보를 통해 토란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특히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했다"라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학교급식·공공급식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토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개발과 교육,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토란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상품화 및 지역 축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방안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대숲맑은 담양쌀, 제주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대숲맑은 담양쌀이 제주도 학교급식 쌀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제주도 내 700여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게 됐다.

제주도는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 전국 단위 공모를 실시했으며,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담양통합RPC)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친환경 쌀 생산 및 납품 관련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제주도 내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을 공급하게 된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2026년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이어 제주도 학교급식까지 공급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쌀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생산부터 수확, 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양 지역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3년 연속 선정, 이중 대상 8회, 최우수상 5회를 수상하는 등 품질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양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지속 운영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맞춰, 2026년에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검진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광양시민 총 368명이 지원을 받아 2024년(282명) 대비 약 30.5%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 한도가 여성과 남성 각각 기존 최대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사업은 2026년부터 생애 1회 지원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과거 지원 이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검진은 보건소를 비롯해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아이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진을 진행한 후, 검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카메라 뉴스



장흥군 새농민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장흥군 새농민회는 30일 정남진장흥농협 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새농민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 2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해 선도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장흥군 새농민회는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장학금 2백만 원을 기부하며, 농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농민회의 뜻을 실천했다. 김종기 장흥군 새농민회 회장은 "농업 현장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새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선도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농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영광군, 농어촌민박 79개소에 소화기 배부

영광군은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일간 영광소방서와 합동하여 관내 농어촌민박 79개소를 대상으로 분말 소화기 배부와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소화기 배부는 민박 운영자가 배부처에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수령하고 안전교육을 받는 집합형 방식과, 교통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군과 영광소방서가 사업장을 찾아가 소화기를 직접 전달하는 방문배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에서는 소화기 배부와 함께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과 농어촌민박 사업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영광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구례지역자활센터, '2025년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행사

구례군은 지난 29일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정민)가 구례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에서 '2025년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자활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자활참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38명의 자활근로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첫 일정으로 청소년기금을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에 전달했으며, 이어 사업단 활동 영상 시청과 사업단별 평가보고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자활근로참여자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운영위원장 우경수님(사성암 주지)은 "올해 많은 성과를 이뤄낸 자활 참여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2026년에도 건강하고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